

미야자와 겐지 『바람의 마타사부로(風の又三郎)』의
일한 번역에 대한 고찰*
-어휘와 문구에 대한 번역전략을 중심으로-

이예안**

Rae-an Lee (2021). A Study on Korean Translations of Kenji Miyazawa's "Matasaburo of the Wind": Focusing on the translation strategies for words and phrases.

This paper reviews Korean translations of Kenji Miyazawa's "Matasaburo of the Wind". In terms of the Japanese word "雪ばかま," its Korean transliteration of "유키바카마" (pronounced "yukibakama") appears to be appropriate in the books translated by Shim Jong-suk (2013) and Jang Hyeon-ju (2018). It is appropriate to translate "油合羽" into "아부라갓과" (pronounced "aburagatpa") with the translator's note of "a raincoat made of oil paper," and "下駄" into "게타" (pronounced "geta") with the translator's note of "Japanese sandals". The most appropriate translation for "二百十日" is "니하쿠토카" (pronounced "nihakyutoka") in the Korean translation by Shim Jong-suk (2013) where the translation strategy of transliteration with the translator's notes is used. Translating "風の又三郎" into "Matasaburo of the Wind" or "The Wind boy, Matasaburo" and adding expatiations with the translator's note, an explanation of the work, and the translator's comments is used. This strategy is helpful for general Korean readers to understand the novel. A recommendable translation of "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 would be "곤겐님(権現さま)의 시중을 드는 사람" [people who serve "Gongensama"] in the translation by Shim Jong-suk (2013). In this case, the translation strategy is to transliterate "権現",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교수

adding the Chinese characters “*権現*” in brackets after the word with the translator’s note to help readers’ understanding.

Keywords: translation strategies, transliteration, translator’s notes, localization, phrases

주제어: 번역전략, 음차 번역, 역주, 자국화, 문구

1. 서론

‘번역 텍스트 분석(analysis of translated texts)’은 하나의 번역물을 그것의 원천 텍스트와 비교하는 것이다. ‘번역 비교(translation comparison)’는 하나의 원천 텍스트를 하나의 목표 텍스트와 비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된 목표 텍스트들을 모아서 이들을 비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주제를 선택하더라도 텍스트의 모든 가능한 측면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중점을 둘 측면(들)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예컨대, 원천 텍스트의 몇 가지 문체적 또는 통사적 특성을 취해서 번역물에는 그러한 측면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조사해 볼 수 있다. 또는 구체적인 번역 문제(수동문, 방언, 또는 인유(allusions) 등)에서 출발하여 번역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떠한 ‘번역 전략이 채택되었는지 알아볼 수도 있다’)

『바람의 마타사부로』는 한국에서 여러 종류의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기존의 일한번역에 대한 연구는 원문을 잘못 해석하여 나타나는 어휘나 문장의 오역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바람의 마타사부로』를 대상으로 한 번역자의 번역전략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여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고는 미야자와 겐지의 『바람의 마타사부로』의 한국어 번역서를 대상으로 하여, 이 작품의 기반이 되는 일본과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 시사점과 일한문학번역의 바람직한 번역전략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1) 제니 윌리엄스, 앤드류 체스터먼 공저/ 정연일 역(2006) 『번역학 연구의 길잡이』 (썬이북스 p.2
- 2) 『風の又三郎』의 책명 한국어 번역은 본고를 논하는 데 우선 편의상 번역자 5명 중에 4명이 번역한 『바람의 마타사부로』로 한다. 『風の又三郎』의 한국어 번역의 적절성 문제는 별도로 본론에서 논하겠다.

2. 이론적 배경

번역에서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에 등가에 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콜러와 Jin Di와 Nida의 등가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미야자와 겐지의 『風の又三郎』의 한국어 번역서『바람의 마타사부로』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W.콜러는 두 언어의 의미, 통사, 문체 단위들과 자질들 사이에서 일 대 일 관계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고립된 하나의 출발어 단위가 상응어(잠재적 등가물)에 병렬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텍스트 차원에서 이러한 잠재적 등가물 가운데 하나가 적절하거나 아니면 가장 최선의 것임이 드러난다. W.콜러는 어휘영역에서 5개의 대응유형(잠재적 등가 유형)을 구별하고 있다. 1)일 대 일 대응(출발언어 표현과 목표언어 표현이 다른 잠재적 등가 없이 일치하는 경우), 2)일 대 다수 대응(출발어 표현이 목표어에서 다수로 나타나는 경우), 3)다수 대 일 대응(출발어의 여러 표현들이 목표어에서는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4)일 대 영 대응(출발어 표현이 목표어의 어휘체계 내에서 (잠정적으로)대응어가 없는 경우), 5)일 대 부분 대응(출발언어와 목표언어의 어휘의 대응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으로 구별하고 있다³⁾.

Jin Di와 Nida는 번역 작품의 독자는 일반적으로 원천 텍스트와 비교할 능력이 없으며, 원천 텍스트 독자가 어떠한 느낌인가는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원천 텍스트 독자와 같은 느낌이다. (Jin and Nida 1984:98 재인용)

“원천 텍스트와 수신자 언어가 서로 다른 문화를 대표할 때, 번역과정에서 ‘자국화(domestination)할 수 없는 기본 주제나 상황이 많기 마련이지만”(Nida 1964:168), 동태적 등가를 추구하는 번역자는 마음만 먹는다면 문화적 차이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⁴⁾.

W.콜러는 잠재적 등가를 Jin Di와 Nida는 동태적 등가를 번역에 도입하고 있다. 본고 또한 W.콜러가 주장하는 어휘영역에서 5개의 대응유형 관점 하에 미야자와 겐지의 『風の又三郎』의 한국어 번역서에 나타난 일본문화와 관련된

3) 박용삼(2003) 『번역학 역사와 이론』 송실대학교 출판부 pp.76-86참조

4) 장남본지음/김진아·도희진 옮김(2006) 『번역학 비판-응용 이론에서 순수 이론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28

어휘와 문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Jin Di와 Nida가 주장하는 원천 텍스트와 수신자 언어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문화적 차이를 축소해서, 번역 작품의 독자가 원천 텍스트 독자와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는 번역 방법에 대해서도 미야자와 겐지의 『바람의 마타사부로』의 한국어 번역서를 대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3. 본론

3.1. 분석대상 텍스트

분석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원서 1권⁵⁾과 다음 표1<분석대상 역서 텍스트>에 제시된 번역서 5권으로 총 6권이다.

표1. 분석대상 역서 텍스트

제목	번역자	출판사	번역년도	저본
바람의 마타사부로	박정임	너머	2012	지쿠마쇼보(筑摩書房) 1986
바람 소년 마타사부로	햇살과 나무꾼	비룡소	2012	미야자와 겐지 세이로쿠 등이 편집 「미야자와 겐지 전집」
바람의 마타사부로	김동근	소와다리	2012	미기재
바람의 마타사부로	심종숙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교본미야자와겐지전집(校本 宮沢賢治全集)』지쿠마쇼보(筑摩書房) 1974
바람의 마타사부로	장현주	더클래식	2018	미기재

박정임 역(2012)의 텍스트로는 지쿠마쇼보(筑摩書房)의 1986년도 판을 사용했음을 역서의 앞부분에서 밝히고 있다.

햇살과 나무꾼 역(2012)의 저본은 미야자와 겐지 연구의 권위자인 아마자와 다이지로와 겐지의 친동생으로 겐지 원고의 보존과 정리에 힘써 온 미야자와

5) 宮沢賢治著 宮沢清六・堀尾青史編集(2016) 「宮沢賢治童話全集 新装版」 『風の又三郎』岩崎書店

세이로쿠 등이 편집한 『미야자와 겐지 전집』을 판본으로 번역했음을 옮긴이의 말에서 밝히고 있다.

김동근 역(2012)은 1934년 초판본 오리지널 디자인 『은하철도의 밤』(한국어판)에 『바람의 마타사부로』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장현주 역(2018)은 저본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

심종숙 역(2013)의 저본은 『교본 미야자와 겐지 전집(校本宮沢賢治全集)』(지쿠마쇼보(筑摩書房1974)을 기본 텍스트로 하면서 포플러사 문고판(ポプラ社) 『바람의 마타사부로(風の又三郎)』(1978)에서 호리오 세이시(堀尾青史), 가네히라 다다시(金平正)의 원고 정리를 수용하면서 적절히 번역에 임했다고 해설에서 밝히고 있다.

5명의 번역자가 원서 텍스트인 저본이 다르거나 미기재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논문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風の又三郎』(岩崎書店)를 분석대상 원서 텍스트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風の又三郎』에 대한 번역자 5명의 번역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분류하여 향후 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원서 예문 옆의 괄호 안 숫자는 해당 표현이 등장하는 페이지이며, 해당 표현이 등장하는 상황에 대한 부연설명은 <상황 설명>에서, 번역자가 취한 전략에 대해서는 <번역전략>에서 살펴보겠다. 예문의 경우 원문을 한국어로 직역하여 표기해 두었다. 번역자가 번역 시 어떠한 전략을 취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단순 직역과 5명의 번역자의 번역을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2. 어휘

사례(1) 雪ばかま

예문:

黒い雪ばかまをはいたふたりの一年生の子がどてをまわって運動場にはいってきて、まだほかにもきていないのを見て、……(p. 104)

직역:

검은색 유키바카마를 입은 두 명의 1학년 아이가 독길을 돌아 운동장에 들어오고, 아직 그 외 누구도 오지 않는 것을 보고, ……

표 2. 번역사례1

원문		박정임(2012)	햇살과 나무꾼(2012)	김동근(2012)	심중숙(2013)	장현주(2018)
雪袴	번역	방설바지	유키바카마	겨울바지	유키바카마	유키바카마

<상황설명>

9월 1일 맑은 하늘에 바람이 뽁뽁 불고 운동장에는 햇살이 가득한 아침에 검은색 ‘유키바카마’를 입은 1학년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는 장면이다.

<번역전략>

사례(1)에서 일본어 ‘雪ばかま’를 햇살과 나무꾼 역(2012)과 심중숙 역(2008)과 장현주 역(2017)에서는 ‘유키바카마’로, 박정임 역(2012)에서는 ‘방설바지’로, 김동근 역(2012)에서는 ‘겨울바지’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햇살과 나무꾼 역(2012)에서는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 입는 통이 넓은 바지. 아랫단을 끈으로 묶어서 입기도 한다.’라고, 심중숙 역(2008)에서는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 입는 통바지’라고 역주를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돕는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어 ‘雪ばかま’를 W.콜러의 어휘영역에서 5개의 대응유형 분류에 적용시켜 보면 ‘일 대 영 대응’에 해당한다.

우선 일본어 ‘雪ばかま’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논하기 전에 하라 시로오 『정보미와자와 겐지 어휘사전』⁶⁾에서 ‘유키바카마(雪袴)’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몸빼. 주로 작업할 때 입는 바지의 일종. 옷깃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져 발 목에서 죄어 묶기 때문에 활동성과 보온성이 뛰어나다. 상부는 헐렁해서 옷을 입은 채 착용했다. 동북지방을 비롯해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 주로 착용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제2차 대전 중에는 여성의 복장으로 일본 옷을 수선 하거나 해서 전국적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もんぺ. もっぺとも. 主に労働着に用いた スボンの一種. 衿の裾がだんだん下で細くなり、足首でくくれるように仕立ててあるため、活動性・保温性に富む。上部はゆったりとしているので、着物(和服)を着たまま着用した。東北地方をはじめ、雪深い地方で、主に冬季に着用されたのでこの名があるが、第二次大戦中には女性の服装として和服を仕立て直したりして全国的に用いられた。)

6) 原子郎(2013) 『定本宮澤賢治語彙辞典』筑摩書房 p.739

이상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어 ‘雪ばかま’는 한국어에는 대응어가 없다. 박정임 역(2012)의 ‘방설바지’와 김동근 역(2012)의 ‘겨울바지’는 원천 텍스트와 수신자 언어가 서로 다른 문화를 대표할 때 번역과정에서 자국화 번역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로 대응어가 없는 경우는 음차 번역한 ‘유키바카마’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작품 배경이 9월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박정임 역(2012)과 김동근 역(2012)의 번역은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햇살과 나무꾼 역(2012)과 심종숙 역(2013)과 장현주 역(2018)이 일본어 ‘雪ばかま’를 한국어로 번역한 ‘유키바카마’가 더 이상 일본어가 아닌 외래어라는 이름의 한국어라고 할 수 있다. ‘유키바카마’에는 일본의 문화가 담겨 있으며, 일본의 ‘유키바카마’와 한국의 ‘겨울바지(방설바지)’의 비교를 통해 한국문화를 되돌아보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례(2):油合羽와 下駄

예문:

一朗は急いでごはんをしまうと椀をこちこち洗って、それから台所のくぎにかけてある油合羽を着て下駄はもってはだして嘉助をさそいに行きました。(p.178)

직역:

이치로는 서둘러 밥을 먹자 짹짹 그릇을 씻고, 그리고 나서 부엌의 못에 걸려있는 아부라갓파를 입고 게타를 들고 맨발로 가스케를 부르러 갔습니다.

표3. 번역사례2

원문		박정임 (2012)	햇살과나무꾼 (2012)	김동근 (2012)	심종숙 (2013)	장현주 (2018)
油合羽	번역	비옷	비옷	기름종이 우비	기름종이로 만든 우비	비옷
下駄	번역	신발	나막신	신발	신발	신발

<상황설명>

이치로가 비옷을 입고 게타는 들고 가스케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다.

<번역전략>

일본어 ‘油合笏’와 ‘下駄’는 한국어로 대응어가 없는, W.콜리의 어휘영역에서 5개의 대응유형 분류에 적용시켜 보면 ‘일 대 영 대응’에 해당한다.

박정임 역(2012)과 햇살과 나무꾼 역(2012)과 장현주 역(2018)은 일본어 ‘油合笏’를 ‘비옷’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들 번역은 일본의 독특한 문화소가 담겨 있는 ‘油合笏’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김동근 역(2012)에서는 ‘기름종이 우비’로 심종숙 역(2013)에서는 ‘기름종이로 만든 우비’로 번역하고 있어 한국 독자들도 비옷의 재료를 알 수 있고 일본 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를 축소할 수 있는 자국화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어 ‘下駄’에 대해서는 햇살과 나무꾼 역(2012)에서만 ‘나막신’으로, 나머지 4명의 번역자는 ‘신발’로 번역하여 자국화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다.

원천 텍스트에 오류나 허점이 있더라도 번역자는 편집이나 조절 등의 개입을 할 수 없으며, 능력이 되더라도 번역자는 원천 텍스트를 개선해서도 안 된다.(Nida1964:155, 225, 226;Nida and Taber:163, 재인용)7) 일본어 ‘油合笏’와 ‘下駄’가 ‘雪ばかま’와 마찬가지로 일본 문화소를 담고 있는 어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油合笏’와 ‘下駄’도 음차번역을 해서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한국독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번역전략을 취하는 것이 원천텍스트의 내용상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 즉 ‘油合笏’를 ‘아부라갓바’로 번역하고 역주로 ‘기름종이로 만든 비옷’으로, ‘下駄’는 게타로 번역하고 역주로 ‘나막신’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사례(3)二百十日

예문:

「やっぱりあいつは風の又三郎だったな。」

「二百十日できたのだな。」 (p.109)

직역:

‘역시 저 녀석은 바람의 마타사부로였어’

‘210일에 왔던 거야’

7) :Nida and Taber 재인용 부분은 모두 Chang Nam Feng(장 南峯)지음 김진아 도회진 옮김 『번역학 비판』 (2006)에서 발췌하였다.

표 4. 번역사례3

원문		박정임 (2012)	햇살과 나무꾼 (2012)	김동근 (2012)	심종숙 (2013)	장현주 (2018)
二百十日	번역	9월 1일, 태풍이 오는 날	이백십 일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니하큐토카 (二百十日)	210 일

<상황설명>

9월 1일에 산골의 작은 학교에 이상한 아이가 전학 오는데, 이 날 바람이 வீ빙 불어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 산의 풀들도 파도처럼 흔들린다. 그래서 반 아이들은 전학 온 아이를 본명이 아닌 ‘바람의 마타사부로’ 로 부르고 210 일라서 왔다고 믿는다.

<번역전략>

일본어 ‘二百十日’는 한국어로 대응어가 없는, W.콜러의 어휘영역에서 5개의 대응유형 분류에 적용시켜 보면 ‘일 대 영 대응’에 해당한다. 박정임 역(2012)에서는 ‘9월 1일, 태풍이 오는 날’ 로 번역하고 있는데 반드시 9월 1일에 태풍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

햇살과 나무꾼 역(2012)에서는 ‘이백십일’ 로 번역하고 역주에서

입춘부터 헤어려 이백십 일째 되는 날로, 해마다 9월 1일 전후다. 일본에서는 이 무렵에 태풍이 자주 분다고 한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김동근 역(2012)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로 번역하고 <일러두기>에서

마타사부부가 전학 온 시기를 두고 원작에서는 「二百十日」(니하큐 토카: 입춘으로부터 이백십일째 되는 날로 태풍이 상륙하는 일이 잦다)라고 하였으나 여기서는 「태풍이 불어오는 계절」로 고쳐 표현하였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 심종숙 역(2013)에서는 ‘니하큐토카(二百十日)’로 번역하고 역주에

입춘에서 210일째 되는 날로, 이날을 전후해서 태풍이 부는 일이 많다. 이러한 설정은 ‘바람의 마타사부로’ 라는 이름과 연관이 있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 장현주 역(2018)에서는 ‘210일’로 번역하고 역주에

입춘을 기준으로 210일째 되는 날, 해마다 9월 1일 전후다. 이 무렵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한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 햇살과 나무꾼 역(2012)과 김동근 역(2012)과 심종숙 역(2013)과 장현주 역(2018)에서는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이백십일’의 의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해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일본어 ‘二百十日’에 대한 음차번역을 하고 한국어 번역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는 번역전략을 취한 심종숙 역(2013)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본다.

3.3. 문구

사례(1) 風の又三郎

예문:

風の又三郎

직역:

바람의 마타사부로

표 5. 번역사례4

원문		박정임 (2012)	햇살과 나무꾼 (2012)	김동근 (2012)	심종숙 (2013)	장현주 (2018)
風の又三郎	번역 (책명)	바람의 마타사부로	바람 소년 마타사부로	바람의 마타사부로	바람의 마타사부로	바람의 마타사부로

<상황설명>

일본어 ‘風の又三郎’는 책명과 본문에 등장하는 어휘다. 9월 1일에 아이들이

학교에 왔는데 모습이 정말 이상한 아이가 앉아 있어서 모두들 의아해 한다. 그때 마침 바람이 휘잉 불어와 교실 유리창이 덜컹덜컹 울리고 학교 뒤쪽 산에 있는 역새나 밤나무도 이상하게 흔들렸다.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도 가까스로 웃고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러자 가스케라는 아이가 저 녀석은 ‘바람의 마타사부로’ 라고 외친다.

<번역전략>

사례(1)의 번역사례를 보면 ‘風の又三郎’을 하나의 문구로 보고 번역하고 있다. 이 어휘 번역을 W.콜리의 어휘영역에서 5개의 대응유형 분류에 적용시켜 보면 ‘일 대 부분 대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 ‘風’은 한국어 ‘바람’에 해당하고 ‘又三郎’은 한국어에 대응어가 없다. 일본어 ‘風の又三郎’을 햇살과 나무꾼 역(2012)에서는 ‘바람 소년 마타사부로’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외 번역자들은 ‘바람의 마타사부로’로 번역하고 있다.

박정임 역(2012)의 해설에서

산골의 작은 학교에 바람처럼 나타난 전학생은 보통 아이인 다카다 사부로일까, 아니면 바람의 정령인 ‘바람의 마타사부로’일까⁸⁾

라고 쓰고 있다.

햇살과 나무꾼 역(2012)의 본문에서

미야자와 겐지의 고향인 도호쿠 지방에서는 바람을 의인화하여 ‘가제노 사부로’ 또는 ‘사부로’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바람군’, ‘바람들이’쯤 된다. 가스케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전학 온 낯선 아이를 ‘또 하나의 사부로’라 는 뜻의 마타사부로라고 한 것이다.

라고 역주를 달고 있다.

박정임 역(2012)의 해설에서는 전학 온 학생을 바람의 정령인 ‘바람의 마타사부로’로 단정하고 있지 않는 데 비해 햇살과 나무꾼 역(2012)에서는 전학 온 낯선 아이를 ‘또 하나의 사부로’라고 해설하고 있다.

김동근 역(2012)은

8) 미야자와 겐지 지음·박정임 옮김(2012) 『미야자와 겐지 전집 I』 너머 p576

마타사부로는 이와테 지방에서 모시는 바람의 신으로 매년 불어오는 태풍을 작은 꼬마로 의인화하여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려고 했다.

라고 일러두기에서 언급하고 있다.

심종숙 역(2013)에서는

이와테의 척박한 기후는 이 작품의 제목인 ‘바람의 마타사부로’와 깊은 연관을 가지는데, 그러한 현실적 어려움인 바람은 이와테의 농민들에게는 극복의 대상이지, 이 책에 나오는 아이들이 동경하는 마타사부로와 같은 이미지가 아니다.

라고 해설에서 언급하고 있다.

장현주 역(2018)은

‘바람의 마타사부로’는 바람의 동자신으로 현재도 이와테·니가타 등에서 제사 의식을 행한다. ‘마타’라는 글자는 미야자와 겐지가 창작한 것이다.

라고 역주에서 말하고 있다.

5명의 번역자 모두 일본어 ‘風の又三郎’에 대해 한국어 번역에 대해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風の又三郎’은 작품 제목명이면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사례(1)에서 4명의 번역자 모두 ‘바람의 마타사부로’에 대해 해설을 붙이고 있고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박정임 역(2012)에서는 ‘바람의 마타사부로’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지 않고 ‘사부로’가 평범한 아이인지 바람의 정령인지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다시 말하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는 점이 다른 번역자들과 다르다.

일본어 ‘風の又三郎’에 대한 호리오 세이시(堀尾青史)씨의 해설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바람의 마타사부로’는 겐지가 지어낸 어휘입니다. 동북, 에치고 방면에서는 ‘바람의 사부로’라고 불리는 바람신으로 바람을 넣은 자루를 짚어지고 달리는 석상이 남아 있습니다. 입춘부터 헤어려 이백십일째 되는 날에 정기적

으로 덮치는 태풍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수확 전의 공포의 대상이라 무사를 기원하며 제를 지냅니다. 9월초에 산촌에 있는 분교에 돌연 전학 온 외국인 처럼 보이는 아이를 마을 아이들은 그 바람신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 한 아이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횡 바람이 불고 뭔가 기분 나쁜 분위기가 맴 돌기 때문입니다. (『風の又三郎』は賢治の造語です。東北、越後(えちご)方面では「風の三郎」と呼ぶ風の神で、風を入れた袋をかついで馳ける石の像が残っています。二百十日のように定期的の襲う台風は、農民にとっては収穫前の恐怖ですから無事を祈って祭るのですが、九月はじめ山村の分校へ突如やってきた外国人のような子どもを村の子たちはその風の神だと思いこみます。なぜならこの奇体な子の行くところ、かならずドウと風が吹き、何か不気味さがただようからです。(宮沢賢治 童話全集 新装版 9「風の又三郎」、堀尾青史の作品案内)p.189

일본어 ‘風の又三郎’는 겐지가 만들어낸 어휘라는 점에서도 한국어로 대응하는 어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바람의 마타사부로’ 또는 ‘바람 소년 마타사부로’로 번역하고 이에 대해 역주나 작품 해설, 옮긴이의 말 등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전략은 한국 일반 독자들에게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다만 아동 독자를 대상으로 번역한다면 책 제목만 보고도 ‘마타사부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햇살과 나무꾼(2012) 역에서처럼 ‘마타사부로’ 앞에 ‘소년’을 첨가해주는 것도 작품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번역전략이라고 본다.

사례(2) 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

예문:

先生はびかびか光る呼子を右手にもって、もう集まれのしたくをしているのですが、そのすぐうしろから、さっきの赤い髪の子が、まるで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のようにすましこんで、白いシャツポをかぶって先生についてすぼすぼとあるいてき たのです。(p.110)

직역:

선생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호루라기를 오른 손에 들고 벌써 조회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바로 뒤에서 조금 전의 빨간 머리 아이가, 곤젠님의 시중을 드는 아이처럼 해서, 하얀 모자를 쓰고 선생님을 따라 또박또박 걸어왔습니다.

표 6. 번역사례5

원문		박정임 (2012)	햇살과 나무꾼 (2012)	김동근 (2012)	심종숙(2013)	장현주 (2018)
権現さま の尾っぽ 持ち	번역	수호신의 시중을 드는 사람	훌륭한 스님의 시중	부처님의 시중을 드는 아이	곤젠님(権現さま) 의 시중을 드는 사람	부처님의 시중

<상황설명>

이 작품의 주인공인 ‘다카다사부로(高田三郎)’가 전학 온 날 교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다시 하얀 모자를 쓰고 선생님을 따라 또박또박 걸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곤젠님의 시중을 드는 아이에 비유하고 있다.

<번역전략>

사례(2)에서 ‘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의 한국어 번역을 보면 번역자에 따라 번역전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라 시로오 『정본 미와자와 겐지 어휘사전』에서 ‘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곤젠(権現)의 본래 의미는 부처나 보살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임시로 나타나는 것으로 신·불혼합의 혼지스이자쿠(本地垂迹) 설에서는 부처가 일본의 신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치지만, 동북지방에서는 시시 마이의 머리를 곤젠님이라고도 하며 가구라(神楽)가 행해지는 중에는 클라이막스에 곤젠마이를 춘다. ……한 명이 곤젠님의 머리를 잡고 춤을 추고 또 한 명은 ……‘꼬리를 잡고 머리를 잡고 춤추는 사람에 맞춰 뒤에서 따라가며 춤을 춘다.

(権現の原義は仏や菩薩が人間を救うためにいろいろな姿をしてこの世に権(仮)に現れることで、神仏混合の本地垂迹説では、仏が日本の神として現れると教えたが、東北地方では獅子舞の頭を権現さまとも言い、神楽の中ではクライマックスに権現舞が舞われる。……一人が権現さまの頭を持って舞い、……「尾っぽ」を持ち、頭を持った舞い手にあわせて後ろから従って舞う。[風の又三郎]の先生が頭を持った舞い手とすれば赤毛の子は「しことり」といったユーモラスな描写である⁹⁾。) (pp.283-284)

9) 原子郎(2013) 『定本宮澤賢治語彙辞典』筑摩書房 pp.283-284

일본어 ‘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에 대한 박정임 역(2012)의 ‘수호신의 시중을 드는 사람’은 ‘権現さま’가 ‘수호신’의 의미와는 다른 뉘앙스이므로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햇살과 나무꾼 역(2012)에서 ‘権現さま’가 ‘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데 ‘인간’의 의미를 해석하여 ‘훌륭한 스님의 시중’으로 번역한 것은 바람직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김동근 역(2012)의 ‘부처님의 시중을 드는 아이’와 심종숙 역(2013)의 ‘곤겐님(権現さま)의 시중을 드는 사람’과 장현주 역(2018)의 ‘부처님의 시중’은 의미상에는 문제가 없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2)에서 ‘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의 한국어 번역을 Jin Di와 Nida가 주장하는 <원천 텍스트와 수신자 언어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문화적 차이를 축소해서, 번역 작품의 독자가 원천 텍스트 독자와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는 번역>에 적용시켜 보면 심종숙 역(2013)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 ‘権現’을 음차 번역하고 괄호 안에 해당 한자 ‘権現’을 넣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역주에

일본에서 쓰는 신의 칭호 중 하나. 부처나 보살이 증생을 구하기 위해 임시 권도로 일본에 신으로서 나타난 것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덧붙여 한국 독자들이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일본어 ‘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에 비유된 인물은 미야자와 겐지의 『바람의 마타사부로』 주인공인 바람의 ‘마타사부로(風の又三郎)’이다. 『바람의 마타사부로』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사례(2)에서 심종숙 역(2013)의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축소하려는 번역전략은 한국 독자가 원천 텍스트 독자와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4. 결론

이상에서 미야자와 겐지 『風の又三郎』의 한국어 번역본 『바람의 마타사부로』를 대상으로 어휘와 문구를 중심으로 한 번역사례를 통해 번역자가 취한 번역 전략을, W.콜러의 잠재적 등가와 Jin Di와 Nida의 동태적 등가를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어휘로는 일본어 ‘雪ばかま’와 ‘油合羽와 下駄’와 ‘二百十日’를, 문구로는 ‘風の又三郎’와 ‘二百十日’에 관한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어휘는 W.콜러의 어휘영역에서 5개의 대응유형 분류에 적용시켜 보면 ‘일 대 영 대응’에 해당하며 한국어로 대응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어휘에 대한 번역에서 일본어 ‘雪ばかま’의 경우는 햇살과 나무꾼 역(2012)과 심종숙 역(2013)과 장현주 역(2018)에서 음차 번역한 ‘유키바카마’가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油合羽와 下駄’에 대해서는 5명의 번역자가 자국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들 어휘는 ‘雪ばかま’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담고 있는 어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油合羽와 下駄’도 음차번역을 해서 일본문화를 살리는 번역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油合羽’를 ‘이부라갓과 로 번역하고 역주에 기름종이로 만든 비옷으로, ‘下駄’는 ‘게타’ 로 번역하고 역주에 ‘나막신’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일본어 ‘二百十日’에 대해 박정임 역(2012)을 제외하고 4명의 번역자 모두가 한국어 번역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일본어 ‘二百十日’에 대한 음차번역을 하고 한국어 번역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는 번역전략을 취한 심종숙 역(2013)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본다.

일본어 ‘風の又三郎’는 ‘바람의 마타사부로’ 또는 ‘바람 소년 마타사부로’ 번역하고 역주나 작품 해설, 옮긴이의 말 등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전략은 한국 일반 독자들에게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일본어 ‘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의 한국어 번역은 심종숙 역(2013)의 ‘곤겐님(権現さま)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 ‘権現’을 음차 번역하고 괄호 안에 해당 한자인 ‘権現’을 넣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고, 역주에서 상세한 설명은 부연함으로써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미야자와 겐지 지음·박정임 옮김. (2012). 『미야자와 겐지 전집 I』 너머: 576.
박용삼. (2003). 『번역학 역사와 이론』 숭실대학교 출판부: 76-86.
제니 윌리엄스, 앤드류 체스터먼 공저/ 정연일 역. (2006). 『번역학 연구의 길잡이』 (쥬이지북스: 2.
장남본지음/김진아·도희진 옮김. (2006). 『번역학 비판-응용 이론에서 순수 이론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8.
原子郎. (2013). 『定本宮澤賢治語彙辭典』 筑摩書房: 283-284, 739.

<용례 출전>

- 김동근. (2012). 『바람의 마타사부로』 소와다리.
박정임. (2012). 『바람의 마타사부로』 너머.
심종숙. (2013). 『바람의 마타사부로』 지식을 만드는 지식.
햇살과 나무꾼. (2012). 『바람 소년 마타사부로』 비룡소.
장현주. (2018). 『바람의 마타사부로』 더클래식.
『宮澤賢治童話全集』. (2016). 新裝版 9 「風の又三郎」.

This paper was received on 19 November 2021; revised on 30 November 2021; and accepted on 3 December 2021.

Author's email address

hinolee@jejunu.ac.kr

About the author

Lee Rae-an

Professor,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t Jeju National University

Chairperson, Korean Society of Japanes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Japanese-Korean translations: “Shima’s Dream: A Walk for Okinawan Folklore” (co-translator) and “In Search of a Primitive Shinto Shrine” (co-translator)

Journal articles: A Consideration on the Various Korean Translations of Kenji Miyazawa’s “The Restaurant of Many Orders” — Translation Strategies for Substructional Words and Phrases of Literary Works, etc.